



사순 제2주일

일어나라 하십니다.
떠나라 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길에 자꾸만 저를 초대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 걸을 때 저는 주님, 평온한 일상과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게 허락하시는 이 길은,
때로는 고독과 이해받지 못함과 익숙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의 떠남입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며 마치 두려움이 가득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주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유혹임을 압니다.
알면서도 그 유혹에 한 번쯤은 자신을 놓아두고 싶습니다.
제대로 떠나지도 못하는 제게, 당신은 먼저 일어나 걸으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뒤만을 따르면서
언제나 당신의 십자가보다 작은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당신이 누리는 영광에는 함께 머물고 싶고 받고 싶은 이 작고 가난한 마음.

주님, 당신께서는 아시지요?
저희 연약함을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굳은 결심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다가와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
다정스럽지만 준엄함으로
“두려워 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함은 이 하나이오니,
저희의 흔들리는 발걸음에도 주님의 힘찬 발걸음을 더해 주소서.

매년 저희는 당신의 사순절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먼저 걸었던 사순절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걸으셨던 사순절을
그저 흉내만 내면서도
비틀거리며 걷는 저희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이 길을 응원합니다.
저도 걷고 당신들도 걸으며 흉내를 내듯 쫓아온 이
2023년의 사순절이
올해에는 유난히 다르고 새로워지기를 스스로 다짐하듯
남몰래 조용한 기도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은총의 사순절, 일어나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먼저 힘차게 걸으시니, 그분의 어깨 뒤에 숨어 비틀거리더라도
그중에 내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여 또다시 넘어져도
그렇게 다시 한 번 일어나 떠나고 걸어갑시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언제나 힘차게 머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정훈 라파엘 신부 | 교포사목(미국 덴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화 답 송
제 2 독 서
복 음

창세 12,1-4ㄱ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2티모 1,8L-10
마태 17,1-9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8

명례본당(3)

명례明禮란 신라 법흥왕이 이곳 사람들의 예의 밝음을 칭송하며 하사한 이름이라 한다. 일찍부터 낙동강의 평화스러운 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난 교우들이 별 마찰 없이 모이고 훗날 성당까지 지을 수 있었던 숨은 배경이다.

명례본당은 경상도 네 번째 본당이다. 1886년 대구본당, 1890년 부산본당, 1894년 가실(왜관)본당, 그리고 1897년 명례본당이다. 임시 본당이란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어떻게 정식으로 발령받은 신부가 7년간 사목했던 곳이다. 마산교구로선 잊을 수 없는 본당이다.

경남의 첫 본당은 부산본당으로 1890년 절영도(現 영도)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 있던 조내기潮落里公소가 모체다. 초대 주임은 파리의방전교회 조조(Jozean 조득하) 신부로 25살 젊은 나이에 부임했다. 지금의 청학성당 수녀원 자리에 초가집을 짓고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경남의 흩어진 공소를 돌봤다.

일 년이 지나자 조조 신부는 본당 이전을 결심한다. 섬 안에 고립되어 있었기에 불편했던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도 부산항 중심지로 옮겨야 했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초량草梁에 대지를 마련하고 본당을 이전했다. 초량본당의 출발이다(1891년).

당시 부산본당 관할은 넓었다. 동으로 울산과 경주지역이었고 서쪽으로 밀양과 양산지역, 함안과 진주지역, 고성과 통영지역 그리고 거제도까지 갔다. 판공성사로 공소 방문을 하려면 시간과 체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경남 중부지역에 본당을 신설해 서쪽지방 공소들을 전담시키고 싶어 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밀양 인근 공소들이 들뜨기 시작했다. 신부를 모신 본당으로 승격하고 싶었던 것이다. 본당 후보지로 압축된 곳은 밀양, 명례, 읍실(삼랑진) 세 곳이었다.

한편 정보를 입수한 명례공소는 120냥을 주고 세 칸짜리 집을 샀다. 본당 승격을 대비해 사제관을 마련했던 것이다. 어떤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본당은 명례로 선택되었다. 발령이 나자(1897년) 강성삼 신부는 곧바로 명례로 가려 했다. 하지만 구매했던 집을 주인이 비워 주지 않아 부득이 부산본당에서 해를 넘기고 1898년 1월 명례에 부임했다.

강 신부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명례본당 구역은 밀양과 양산, 언양과 경주지역뿐이었다. 진주와 함안, 통영과 거제도는 여전히 부산본당 구역이었다. 1900년이 되자 김해와 창원지역이 명례본당 소속으로 들어왔다.

명례본당은 사라졌지만 맥을 잇는 본당이 삼랑진과 진영에 등장했다. 앞서 언급했듯 명례본당 설립엔 피난 교우들의 헌신이 묻어 있다. 밀양 단장으로 유배 왔던 김범우 순교자 후손들과 그들에 의해 입교한 교우들이다. 한편 김범우 묘소가 있음을 알고 이왕 숨어 지낼 바에야 순교자 무덤 근처로 가자는 의도에서 밀양과 양산 인근으로 들어온 교우들도 있었다.

소백산맥 남단 일대의 신불산, 능동산, 고현산, 대운산, 관월산 등을 무대로 피난 교우들은 곳곳에 모여 살았다. 그들은 용기를 굽고 화전을 일구며 근근이 살아갔다. 이들의 만남이 공소로 발전하였고 그들을 흡수해 만들어진 첫 본당이 명례본당이었던 것이다.

1926년 2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했던 권영조權永兆 신부는 기와로 된 성당을 지어 낙성식을 가졌다(1928년). 하지만 1935년 태풍으로 전파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38년 무너진 자리에 축소 복원한 것이다. 지금의 명례성지 자리는 원래 낙동강물이 휘돌아 가며 부딪치던 언덕이었다. 2009년부터 실시했던 4대강 사업 결과로 육지에 솟은 땅이 되었다.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번 시간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전적 정의定義보다는 신학적 의미意味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성인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느님’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만일 계신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뵈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는 시점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을 ‘이성의 빛’만으로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적 이해와 표현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를 묘사,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눈으로 볼 수도, ‘이성의 빛’을 통해 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는 왜 그리도 찾고 있을까요? 특히 불행, 슬픔, 고통 그리고 크고 작은 실패라는 시련들로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을 겪을 때,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바로 그 순간들조차도 우리는 ‘왜’ 하느님을 찾고 그분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일까요?

삶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동시에 하느님께 ‘왜’라는 물음을 던지는 나 자신을 각성覺醒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즉 신학’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얻게 되는 것은 그저 나의 교리 지식만이 아니며,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기에, 단지 남이 만났던 하느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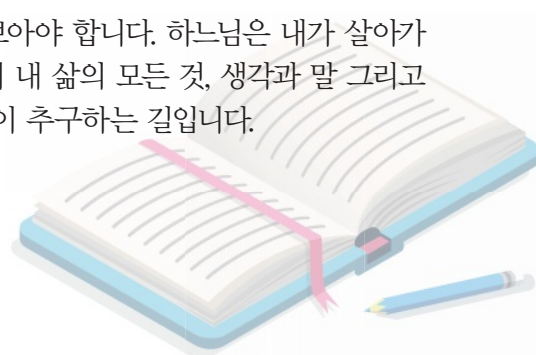
정말이지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느끼거나, 믿거나, 고백하고는 있지만, 자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 고백하면서도, 또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에,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수록 참담한 현실에 대해 원망과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재不在에 대해 한탄恨嘆 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엄한 면, 전지전능한 면, 심판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보다는 그분의 심판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느님을 대하기 두려운 분으로 고백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느님에 대해 ‘불의를 꺾으시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특히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우리가 밝히고 싶은 어떤 분이시지만, 동시에 내가 희망하고 동경하는 것을 체험하길 원하는, 동시에 체험하게 해주는 깊은 신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 아는 것도 아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신앙의 신비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 2항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계시로써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

하느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며, 벼슬 사귀듯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복음서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이들, 창녀들,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잃었던 아들의 비유’(루카 11,15-32)에서의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은 ‘나(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십니까?” 각자 삶에서 하느님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원리이기에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 생각과 말 그리고 가치들을 하느님께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信仰이고, 신학神學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물의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수도 다카 공항을 벗어나니 숨 막히게 훅 밀려오는 더운 바람, 구걸하며 손을 내미는 어린 소년들, 키 큰 야자나무, 무슬림 사원의 둥근 지붕……. 한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과연 선교지에 왔구나 하고 실감했다.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국가로 한때 동파키스탄으로 불렸으나 종교적 갈등으로 1971년에 분리 독립하였고, 한국의 1.5배 면적에 무려 1억 6천만 명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하다.



수상 슬럼가



우리 작은 자매들은 1977년 봄, 방글라데시의 두 번째 도시 쿨라의 가난한 동네, 물 위에 열기설기 엮어 세운 집들 사이에 첫 프라테르니타(우리는 '분원'을 '프라테르니타'라고 부르는데 '형제애를 나누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다)를 마련했고, 얼마 안 되어 그 곁에 수련소를, 그리고 17년 후, 1994년에는 다카 슬럼가에 세 번째 프라테르니타를 시작했다. 무료급식, 유태(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삼 종류) 작업장, 이동진료소, 공부방(학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았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같이 웃고 울었던 이야기 하나를 할까 싶다.

인근 슬럼가를 돌면서 어느 방 한 칸을 빌려 하루 간이 진료소를 연다. 웬만큼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 먹을 꿈도 꿀 수 없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감기약, 신경통 약은 귀하다. 가끔은 그들이 약조차 타러 올 수 없는 중환자에게 우리를 안내하면 병원으로 모셔가기도 하는데 방글라의 여인들은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가 만난 한 여인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 바로 앉아 있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딸은 농아인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여인(빠르빈)을 국립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었지만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한 달이 지나도록 대기 상태로 기다릴 뿐이었다.

엄마가 집에 없는 한 달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려 할머니가 그 충격으로 거의 실성한 듯이 손주(샤민)를 찾아 헤맨다는 소식에 빠르빈은 어렵게 입원한 병원을 탈출하고, 모두는 샤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이들이 불법 장기 매매자들에게 가끔 잡혀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 한 이웃이 샤민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응

답이라고 느꼈다. 할머니는 미소를 되찾았고 엄마는 치료받지 못하고 말았지만 가난해도 가족의 끈끈한 정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많이 가진 자들의 전유물일까?

다 허물어져 가는 판잣집에 살면서 비가 한 번 내리면 물을 퍼내느라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어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들, 공사장에서 온종일 일을 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강인한 사랑에서 참 행복의 씨앗을 본다.

가난한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는 그들의 삶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묻게 하고 우리도 복음적 가난을 살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들과 더 나누라고 자극하고 재촉한다.

사랑의 세레나데

박수영 베아트릭체 시인/ 가톨릭문인회

저는 고무나무를 닮은 사람입니다. 윤기나는 잎사귀 앞면과 윤기 없는 잎사귀 뒷면을 동시에 펼쳐 보이는 고무나무는 얼굴에만 로션을 바르고 손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은 채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저의 남편은 호접란을 닮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자태, 화분을 한 바퀴 빙 둘러보아도 곱게 화장한 앞모습만 보여주는 꽃, 가까이 다가가도 향기조차 남기지 않는 호접란은 언제나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품위 있는 저의 남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추운 겨울날 가슴기를 사 왔습니다. 우윳빛 몸체에 전원코드를 연결하면 발그스름, 푸르스름하게 무드등 색깔이 변하며 안개처럼 수분이 분사되는 물건이었죠. 늘 코막힘으로 고생하던 남편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저는 불면증 때문인지 가슴기 때문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의 입구엔 앙상한 나무처럼 생긴 스탠드 옷걸이가 서 있었고 거기엔 남편이 다음날 입으려고 걸어둔 롱 패딩 점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 가슴기 불빛과 함께 안개 같은 수분이 검은 점퍼 위로 타고 오르는 모습은 한밤의 공동묘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 패딩은 하필 저를 주시하고 있다가 곧 다가올 것만 같은 각도로 서 있었는데 다리도 목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검정 롱 패딩 점퍼의 모습이 영락없는 귀신같아서 저는 이불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호접란이 한 무더기 핀 것 같은 존재감으로 코를 고는 소리가 처음엔 얄밟다가 어떻게든 자야겠다고 생각하니 옆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덜 무서웠고 코 고는 소리가 웃기기도 했다가 ‘오늘은 많이 피곤했나 보다.’ 싶기도 하더니 나중엔 ‘저 가장은 잠을 자면서도 이곳은 맘 놓고 코를 골만큼 안전한 곳이라고 나를 안심시키는구나.’라는 생각에 잠깐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그 소리는 심호흡처럼 편안하고 깊은 리듬감을 가지고 있어서 명상을 할 때처럼 몸에 힘을 빼면 흔들리는 파도 위에 누운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만약 제가 예민한 사람이었더라면 제가 괴로운 순간에 옆에서 신명나게 코를 고는 배우자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하고 동시에 겁도 많은 저에게 그 소리는 꼭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날 밤, 그 소리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같이 행복하자고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불 꺼진 방, 검정 롱 패딩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사랑의 세레나데였기 때문이죠.

기억할 선종 사제



정수길(요셉) 신부
1978년 3월 6일



서원열(라파엘) 신부
1999년 3월 7일

교구청사 이전

일시: 3월 6일(월)~10일(금)
※교구청 이전 관계로 업무가 중단됩니다.
새 교구청사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구 교구청사의 명칭은 '가톨릭 문화원'으로
칭합니다.

견진사

일시: 3월 12일(주일)
장소: 장승포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 사목 방문

일시: 3월 9일(목)
본당: 반송/ 용원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3월 8일(수)
본당: 사천/ 삼천포/ 생림선교/ 수산/
용잠/ 진례/ 진영
일시: 3월 9일(목)
본당: 서포선교/ 진교/ 하동

교구/본당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입학미사

일시: 3월 7일(화) 11:00

전국 성소국장 모임

일시: 3월 8일(수)~10일(금) 2박 3일

장소: 수원 아론의 집

'2023년 1학기 교구 성경공부' 교구청 개강 일정
변경 안내

일시: 개강-3월 14일(화) 10:00(마르코 복음서)
3월 7일(화) 교구청 이전 관계로 일정 변경합니다.

청년간부 연수

일시: 3월 11일(토)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예비신학교·여학생 예비성소 입학식

일시: 3월 12일(주일) 13: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3월 봉사자 월례회

일시: 3월 6일(월) 14:00
장소: 옥봉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의: 담당자 010·5116·2288

2023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일정: 3월 20일~6월 26일, 15주간
개강일-3월 20일(월) 10:00
장소: 교구청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
상 소지자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
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216차 ME주말 안내

일시: 3월 24일(금) 19:00~26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 발송-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기 타

재속 프란치스코회 영성특강 안내

일시: 3월 11일(토) 11:00~13:00 매월 둘째 주 토
장소: 칠암동성당
대상: 누구나
주제: 프란치스코의 경제
강사: 김일득 모이세 신부(ofm)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부산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일시: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3월 11일(토)/ 4월 8일(토)/ 5월 13일(토)/
6월 10일(토)/ 7월 8일(토)
장소: 부산 로사리오의 집
문의: 010·7155·3498,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3월 12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심'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3월 13일~15일/ 3월 18일~20일/ 3월 24일~26일/
3월 28일~30일/ 4월 1일~3일/ 4월 10일~12일/
4월 13일~15일/ 4월 22일~24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제주자연괴정(성이시들 괴정센터)
02·773·1455, 064·796·418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구	3월 6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이 말하는 "교만"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3월 5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 성지순례 모집 4.3(월)~6(목)/ 4.10(월)~12(수)/ 4.28(금)~30(주일) 5.1(월)~4(목)/ 5.8(월)~10(수)/ 5.15(월)~18(목)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4.14(금)~16(주일) 전주·광주 3일(오송 KTX역 집결) 4.21(금)~23(주일) 인천·의정부 3일(부산·대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동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스페인 산티아고 9박 10일 4월 11일 & 5월 15일/ 375만원 ■이집트&이스라엘 11박 12일 4월 16일/ 475만원 b7ra(주)보나투어 02-732-4578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레자 요한) 010.5053.5393 마산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 마산 성바오로서원은 새 교구청으로 이전한 후에도 현재 교구청 자리에서 계속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10-9753-3089
--	--	---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3월 18일~20일/ 4월 3일~5일/ 5월 12일~14일
성지순례: 3월 12일~15일/ 3월 25일~28일/ 4월 15일~18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모집

추가모집: 3월 31일(금)까지(우편 접수 가능)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 통신(우편)으로 공부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사: 1박 2일- 4월 1일(토)~2일(주일)
5월 13일(토)~14일(주일)
3박 4일- 3월 9일(목)~12일(주일)
4월 27일(목)~30일(주일)
8박 9일- 3월 20일(월)~28일(화)
4월 13일(목)~21일(금)
40일- 4월 11일(화)~5월 20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피정

일사: 4월 6일(목) 16:30~9일(주일) 13:3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30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내용: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돕기(ACN)에서 출간한 '십자가의 길' 소책자를 무료배포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문의: 02·796·6440, 010·7475·6440(문자가능)
www.churchinneed.or.kr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일사: 3월 13일(월) 13:00~17: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사주례: 박혁호 미카엘 신부
주제: 주님께서는 앞으로
도 나를 모든 악행
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수
있게 구원해주실것
입니다.(2티모 4,18)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

대상: 장기요양(시설)등급을
받으신 어르신(1~2등급/
3~5등급)
주소: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55·532·7811



“당신이 천주 교인이요?”

하느님의 구원을 굳게 믿으며 목숨을 바치신 김대건 신부님 25년의 생애!
명서동본당은 3월 10일 성산아트홀에서 '아! 김대건 신부님' 연극 공연을 올리게 되었다. 거창본당의 '라오브라 성극단'의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공연작으로, 문화 선교 차원에서 예비자와 쉬는교우, 본당 신자들에게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죽음의 거룩한 신앙 증거를 통한 영성을 고취하고자 초대하였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정기총회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회장: 황인균 요셉 신부) 정기총회가 2월 16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협의회는 교구 내 56개 사회복지 시설들이 카리타스 정신에 따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총회 의결을 통해 황인균 신부(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가 회장으로 연임되었으며, 부회장은 로템의집 조정혜 로사 관장이 맡게 되었다. 황인균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카리타스 정신에 기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하자고 전하였다.



그림: 진동길 신부

그곳에서

진동길 마리오 신부

그곳에서
몽둥이를 쥔 사나운 사냥개는 없었다
양을 표적으로 삼는 승냥이도
토끼를 노리는 날카로운 발톱의 독수리도
없었다.

지난밤 내 잠자리를 덮친
괴상한 프랑켄슈타인도
공포영화에 나오는 처기도
없었다.

상상 속 천국이 없는 것처럼
거기서 나는
포장지만 다른 한 사람이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저는 지난 11월부터 교구 교정사목 협력 사제로 사목하고 있는 진동길 마리오 신부입니다. 위의 글은 제가 교정 사목 협력 사제로 불림을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그날의 마음을 쓴 글입니다.

난생처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가면서 제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교도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둡고 거칠고 날카로운 느낌들 아시죠? 첫 미사를 담장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봉헌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만 들어낸 과장된 편견과 선입견, 그 부정적인 상상과 추측의 무게에 짓눌려 몹시 긴장했고 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마음은 뜨겁고 몹시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지금도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병들고 길 잃은 양을 찾아가십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이들에게로 그분은 오늘도 “일어나 가자!”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담장 안으로 가셨겠지요. 그곳에서 갇힌 영혼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겠지요. 분명 그러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세주, 그분이시라면...

“다른 곳, 인근의 작은 읍들을 찾아갑시다. 거기서도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을 하러 떠나왔습니다.”(마르 1,38)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1